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열어 가는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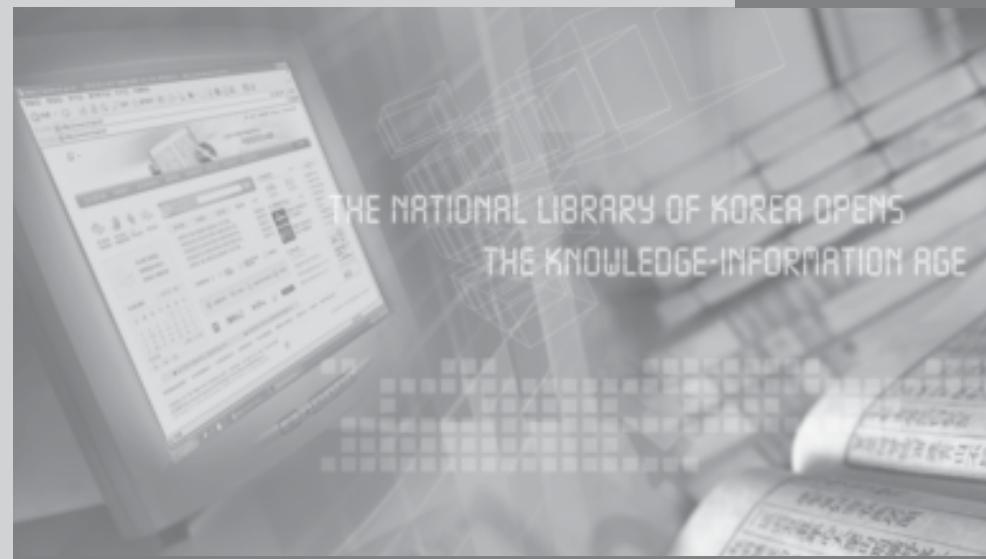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TEL:(02)590-0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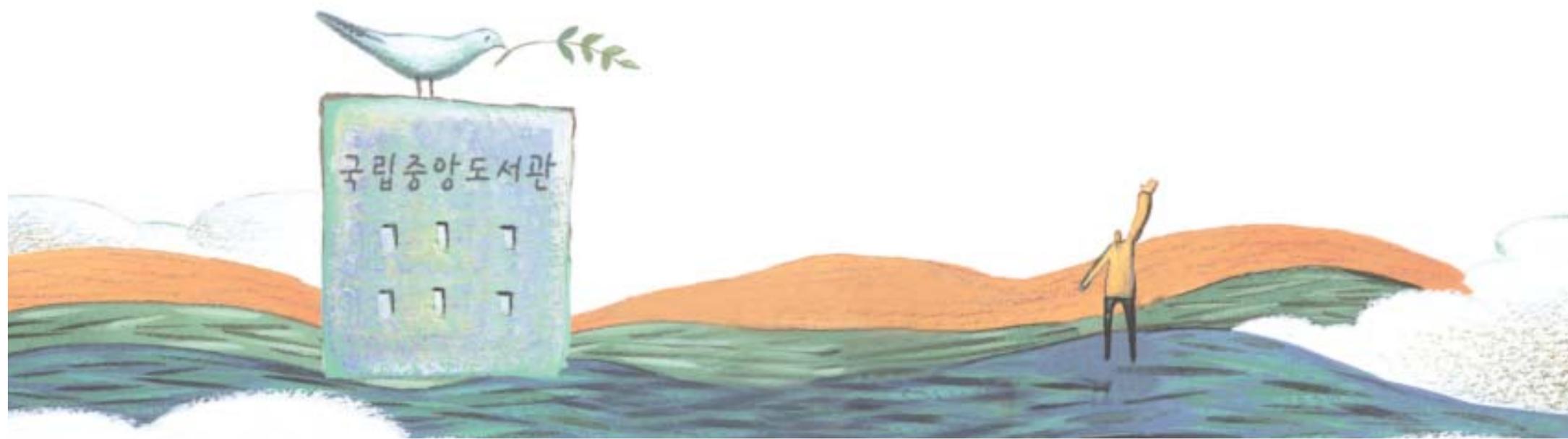
<http://www.nl.go.kr>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열어 가는 국립중앙도서관

Contents

▽ I. 도서관법 전면 개정과 시행	07
▽ II.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12
▽ III. 현장 사서를 위한 사이버 교육 운영	15
▽ IV.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18
▽ V. 도서관 협력망 사업	23
▽ VI.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26
▽ VII. 통합형 사이버 지식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36
▽ VIII. 국가 문헌 공동 보존 차원의 보존 협력사업	38



I. 도서관법 전면 개정과 시행

“도서관법 전면 개정은 왜 추진되었다?”

- 새로운 도서관법의 시행과 함께 도서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식 정보 제공 센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7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도서관은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 기관으로 국민의 자발적 교육·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식 정보 활용 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의 장(場)으로서의 기능 확대 등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법」을 마련하여(2006.10.4), 2007년 4월 5일 발효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서관법」의 시행은 전 부처를 아우르는 도서관 정책 수립 기구의 설치로 체계적,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각 시·도 단위로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도서관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새로운 도서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제정의 변경으로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

이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에 관하여는 「독서문화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 공공도서관의 범주 확대로 지식 정보 격차 해소의 전기 마련

문고와 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을 공공도서관 범주로 편입·확대하고, 사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서비 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의 보장,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관련 직제의 설치로 체계적, 효율적 도서관 정책 수립·집행

도서관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정책 조사·연구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합니다.

구분	소속	기능	근거 조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대통령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	법 제12조 제13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수행	법 제12조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법 제19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개발	법 제45조

▶ 시·도 등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강화

지역 도서관 발전 시책의 수립·지원을 위하여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 정보 격차의 해소에 기여합니다.

구분	기능	근거 조문
시·도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 수립·시행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법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	시·도의 도서관 시책의 집행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활동 수행	법 제22조 제23조
공공도서관	지역의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기능 수행	법 제27조 제28조
지방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식 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법 제24조

“시 · 도와 일선 공공도서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 국가 및 시 · 도의 지원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시 · 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 ·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 운영(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 가능)하고, 이와 함께 국가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 · 도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또한 시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 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지역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일선 공공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인력 · 예산 확보와 집행으로 도서관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11

구분	업무	근거 조문
시 ·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 운영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 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법 제22조, 제24조
지역대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 · 정리 · 보존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 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 연구 지역의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 사업 등 지원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법 제23조
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법 제28조
지방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p>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됨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p>심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도서관의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 도서관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4조

02

II.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 왜 추진하나?”

-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5일제 근무 실시, 참살이 문화의 증가와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간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의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5월 27일 국정 과제 회의 시 대통령께서 “문화 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셨고, 2006년 2월 27일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와 2006년 9월 20일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지식 정보 습득력 향상을 통한 개인과 국가 경쟁력 향상, 공공도서관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가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자기 주도형 학습 및 독서문화 체험의 공간으로서 사회적 역

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정보 습득력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합니다.

“2007년도 사업, 어떻게 진행하는가?”

- **공공도서관의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자료실 22시까지, 열람실 23시까지 운영하고 참고상담, 자료 열람 ·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자료실	18:00 ~ 20:00	22:00	2~4시간 연장 운영
열람실	21:00 ~ 22:00	23:00	1~2시간 연장 운영

- **2006년도 시범사업은 16개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11.20~12.31까지 40일 간 서울 정독도서관 등 16개 지역대표도서관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국고로 지원 · 운영하였습니다. 계절적 요인(12월)에 의하여 이용자 증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 제약으로 접근 기회가 적은 주민에 대한 자료 열람 기회 확대와 80여 명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사업, 16개 지역대표도서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2007년도에는 총 113.5억 원(국비 56.75억 원, 지방비 56.75억 원)을 투입

하여, 도시 소재 63개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던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비롯하여 41개 공공도서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비가 확보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도서관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정보 접근 및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로 문화 향수권이 신장될 것입니다.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 시·도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은 성공적 사업 수행의 열쇠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방비의 확보와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도와 공공도서관의 적극적 후원자로서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일선 공공도서관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부문에서 시·도 및 일선 공공도서관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III. 현장 사서를 위한 사이버 교육 운영

03

- 상시 학습체제, 새로운 교육기법 도입 등 교육훈련 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교육 운영 시스템이란 학습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한 사이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의 신청에서 이수까지의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이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학습자의 사이버 공간 활용 확대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교육 참여도 및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원격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양하게 증가되는 교육 수요를 사이버 교육 확대로 총족시켜,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다양하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와 학습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독서지도 기초 과정, KDC 자료 분류 과정, 도서관 경영 전략 과정, 도서관 장서 관리 과정 등 4개 과정을 상·하반기 2회씩 총 8회 운영 할 예정이며, 매년 2개 내지 3개의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사이버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현장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특히 사이버 형태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 과정 추천이 필수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버교육 시스템
(<http://www.nl.go.kr/education/intro.php>)

▶ 교육 진행 흐름도



▶ 사이버 교육 수강 방법

- 〈수강 신청〉
- 인터넷 연결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또는
사서직 교육훈련



(<http://www.nl.go.kr/education/intro.php>) 접속 ⇒ 사이버 교육센터 ⇒ 강의실

★ 왼쪽 메뉴 '회원등록' 클릭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성명, 기타 인적 사항 입력
- 비밀번호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업무용 노트에 기록 유지
- 사전 회원 등록을 하여야만 수강 신청이 가능

★ 왼쪽 메뉴 '수강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후 ⇒ '나의 공간' (교육 중인 과정과 교육 신청 과정 조회)
-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 및 과목 클릭하여 수강

〈강의 수강〉

★ 수강 방법

- 교육 기간 중 위 수강 신청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 후 수강
- 1일 모든 과목 수강 가능하나, 과목 당 1일 4차시 이상 수강 불가

★ 사이버 교육 관리

- 사이버 교육은 사이버 교육 운영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하며, 음성 강의 및 판서 등과 같이 실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육 실시

★ 교육 훈련 평정(교육 인정 점수)

- 전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2일(14시간) 기준, 2점 부여

04

IV.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작은도서관」이 그리는 책이 가까이 있는 생활입니다.

'인터넷으로 도서관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검색한다, 원하는 책을 골라 클릭한 뒤 대출신청 버튼을 누른다. 대출 장소로는 동네의 「작은도서관」을 선택한다. 이를 뒤 동네 도서관에 책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받는다. 다 읽은 책은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반납한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공공도서관 대신 동네 편의점에 가듯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서 대형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빌려 읽고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이 그리는 새로운 국민 독서 문화의 모습입니다.

● 작은도서관은 동네마다의 '문화 사랑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실질적인 도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혁신적 접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 단위에 소규모 도서관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바로 곁에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문화센터나 동사무소 등 유휴 공공시설을 이용, 50평 내외의 규모로 생활 터전 바로 근처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조성 비용도 상대적으로 작아 주민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그만큼 주민들에게 책과 가까운 생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세성과 자료 보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은 IT 기술을 충분히 활용, 작은도서관 상호 간은 물론 인근 대형 도서관과 힘을 모을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게 됩니다. '상호대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자기 소장 자료처럼 대출 서비스하고,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원문 DB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등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지만 대형 도서관에 못지 않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은 독서토론회, 동화구연, 자녀 독서 및 숙제 지도, 작은 음악회 등 실용성을 겸한 매력적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독서클럽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 사랑방 구실 또한 작은도서관의 큰 장점입니다.

● 2007년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전국 3,580여 개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고루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민간단체, 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임대아파트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총 83개소를 시범 조성하였고, 2007년 올해는 총 7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70여 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단독 건물 건립,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의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인테리어, 도서 구입, 서가 등 비품 설치, 컴퓨터 등 전산기기 구입 등의 비용으로 작은도서관 1관(50평 기준) 당 대략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소요 경비 중 70%에 해당하는 7천만 원内外의 예산을 해당 지자체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공간을 제공하고 조성 경비의 30%와 조성 후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07년 조성사업 계획 수립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에 신청하시면, 심사·선정 후 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현황)

계	'04년	'06년	'07년
153개소	25개소	58개소	70개소(예정)

● 고객이 다시 찾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이용 고객이 다시 찾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마을 단위 작은도서관에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작은도서관 이용 고객에 대한 지식 정보 서비스 향상 및 새로운 수요자 창출 기반 마련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총서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확산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업무 매뉴얼로 활용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우수 운영 사례를 유형별로 개발·보급합니다.

★ 찾아가는 연수교육

고객 맞춤형 이용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권역별로 찾아가는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작은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작은도서관 관련 비전 공유, 상호 협력 방안 도모,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작은도서관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 부여 강화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종사자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지도 검색

온라인을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매체로 활용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지도를 운영·관리 합니다.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모범 협력사업을 지원합니다.

2007년에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16개 시도별로 각 1개의 모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지원(16개 지자체별 1개 공공도서관 당 5백만 원씩, 총 8천만 원 예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사례를 발굴·홍보·파급하여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V. 도서관 협력망 사업

05

● 2007년 도서관 협력망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7년 도서관 협력망의 방향은 공공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는 도서관 협력망 사업을 공공도서관과 인근의 작은도서관까지 연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식 정보 서비스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역 지식 정보 서비스의 최소 단위인 전국 읍·면·동에 위치한 문고에까지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이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제의 범위와 내역을 개선코자 하며, 도서관 협력망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태를 보급·홍보하고, 도서관 협력 담당자를 통해 협력사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서관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고취하고자 합니다.

● 도서관 협력망 및 문고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2006년에 이어 도서관 협력망 및 문고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도서관 현장 실무자 및 연구자, 시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데이터를 작성하고자 실용적인 실태조사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 도서관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의 방법은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협력망 및 문고 운영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내 도서관 협력망의 중요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문고 운영 실태조사는 협력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과 인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고,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분관화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sml/>) 내 온라인 지도에서 전국의 작은도서관 검색을 간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도서관 협력망 실태조사 현황〉

계	'05년	'06년	'07년(예정)
수록 내용	도서관 정보화 사업, 분담 목록, 분담 수서, 상호대차, 공동 보존, 문화프로그램 공유, 관 외 대출증·복사카드 공유, 도서관 협정(협 약) 등 8개 사업 (부록 : 협력망 운영계획 서, 공공도서관 통계 등)	도서관 정보화 사업, 공동 목록, 분담 수서, 상호대차, 공동 보존, 문화프로그램 공유, 관 외 대출증·복사카드 공유, 도서관 협정(협 약) 등 8개 사업 (자료 : 협력망 운영계획 서, 공공도서관 개관 시 간, 공공도서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현황, 공 공도서관 통계 등)	도서관 정보화 사업, 공동 목록, 분담 수서, 상호대차, 공동 보존, 문화프로그램 공유, 관 외 대출증·복사카드 공유, 도서관 협정(협 약) 등 8개 사업 (이외에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제의 범위 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
발간 (배포처)	1,250부 (932개처/공공, 대학, 전 문도서관, 유관 기관 등)	700부 (487개처/공공도서관, 유관 기관 등)	900부 (600개처/공공도서관, 유관 기관 등)
공공도서관 (개소 수)	487개	514개	564개
협력망 홈페이지 (개재 여부)	계재	계재	계재

- 도서관 협력 TF 및 도서관 협력 담당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서관 4대 요소 중 하나인 사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추진한 국립중앙도서관 내 ‘도서관 협력 TF’ 및 전국 공공도서관 내 각 1명씩 지정된 ‘도서관 협력 담당자’(총 430명)를 2007년에도 내실 있게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도서관 협력 TF’는 2005년 8월 창안한 ‘도서관 협력 질의·답변 담당자 지정 운영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국립중앙도서관 내 각 과별(7개과 22명) 업무와 연계한 도서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서관 협력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홍보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역의 도서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 도서관 협력망 메일링 서비스

(<http://www.nl.go.kr/together/index.php>)를 실시합니다.

도서관 협력 관련 사업은 도서관 협력망 홈페이지의 메일링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홍보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도서관의 수준을 향
상하고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06

VI.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 왜 추진하나?”

- 문화관광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 2월 대통령 보고 사항 중 하나로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세부 실천 과제로 ‘상호대차 및 통합형 개인 대출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자료의 소장처, 대출 여부 등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지원하고, 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통한 공동 활용으로 보유 장서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 현재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소유(Own)에서 접근(Access)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상호대차(ILL: Interlibrary Loan)는 협정을 맺은 다른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관의 소장 자료를 빌려 주거나 자료의 복사물을 제공하는 도서관 간 자료의 상호 교류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은 평균 장서 수, 국민 1인 당 장서 수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 구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자료 구입 예산의 삭감과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마저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매년 출판물 증가, 도서 가격 상승, 다양한 정보 매체 출현에 따른 자료 정리 및 보존 비용 증가 등은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도서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 보유 장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 구입을 방지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제고하고 진일보한 이용자 정보봉사를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 1인 당 장서 수 및 장서 총 보유량〉

구분	1인 당 장서 수	총 장서 수 (천 권)
2001	0.56	26,720
2002	0.64	30,970
2003	0.71	34,670
2004	0.85	41,500
2005	0.94	45,411

〈선진국 대비 총 장서 수 및 1인 당 장서 수〉

구분	1인 당 장서 수	총 장서 수 (천 권)
한국(2005)	0.94	45,411
미국(2004)	3.00	871,889
일본(2004)	2.72	333,962
영국(2004)	1.85	110,111
핀란드(2001)	7.24	37,460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 이용 가능한 장서 수가 증가하고, 도서의 이용률을 극대화합니다.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은 도서관 간 보유 장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 가능한 장서 수를 늘려 도서의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장 도서가 10만 권인 A도서관과 7만 권인 B도서관이 상호대차를 수행한다고 하였을 때, 약 2만 권의 장서가 중복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약 15만 권의 장서가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B도서관 이용자는 약 2배의 장서 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 무엇을 제공하나?”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 기반으로 국가 표준 상호 대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공공도서관 간의 소장 자료에 대한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이자 도서관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국가 정보 유통망입니다.

KOLIS-NET은 국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유통망의 구축을 통해 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동시에 전국 공공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목록 정보 구축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개발되었으며, 현재 약 4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서지 레코드 500만 건, 소장 레코드 2,000만 건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KOLIS-NET 서지 및 소장 구축 건수〉

구분	서지 건수(천 개)	소장 건수(천 개)
2001	2,162	7,636
2002	3,017	10,085
2003	3,560	12,818
2004	4,103	15,908
2005	4,646	18,102
2006	5,148	20,033

이용자는 KOLIS-NET에서 제공하는 종합 목록을 기반으로 타 도서관의 장서를 확인하여 상호대차를 요청하게 됩니다.

-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배분식 구조(Distributed Network)를 지원합니다.

도서관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많은 도서관이 한꺼번에 협력망에 가담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대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도서관이 동등하게 상호대차 신청의 권한과 제공의 의무를 갖게 되는 방식이 배분식 구조(Distributed Network)입니다.

자료의 소장처가 확인되면 이용자는 상호대차 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요청한 정보는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센터)에 저장 및 관리됩니다. 이후



센터의 상호대차 운영팀은 요청한 자료가 이용자의 소속 도서관에서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호대차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승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상호대차가 기본적으로 자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자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만 상호대차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해 인접 지역 단위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몇 개에서 수십 개까지의 도서관을 묶어서, 독립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검색은 지정한 지역 내 도서관들의 소장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지정한 지역의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의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상호대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 및 작은도서관 통합 Web 버전 (KOLASYS)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과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6년, KOLASII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통합 Web 버전(KOLASYS)을 사용하는 작은도서관 간에 상호대차가 가능한 ‘지역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상호대차용 서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의 상호대차 관련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소장처 확인을 위하여 분산통합검색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용자는 먼저 지역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호대차 신청을 수행하고,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상호대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 담당자는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 및 작은도



서관 통합 Web 버전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지역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의 상호대차 정보와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의 상호대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 대출증 하나면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즉시 대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러 도서관 간의 도서관 대출증 재사용을 위한 표준화된 국가 표준 회원증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 표준 회원증에 RFID 칩을 내장하여, 하나의 대출증으로 지역 및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대출 이력 및 상호대차 현황을 온라인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한 지역 단위 상호대차 시스템을 사용 중이거나 일반 상용 도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 중일 때, 국가 표준 상호대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단위 상호대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까지 국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상호대차 시스템이 부재한 원인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 및 작은도서관 통합 Web 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이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이렇게 특정 지역 단위로 자체 개발한 상호대차 시스템은 별도의 연계작업이 요구됩니다.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한 지역 상호대차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상호대차 표준 API를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 및 작은도서관 통합 Web 버전 (KOLASYS)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을 위해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 및 작은도서관 통합 Web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과 바로 연계되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용 도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과 직접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작업 없이 상호대차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07년 말 구축 예정인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은 서로 다른 규모와 운영 방식,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공공도서관 다수가 참여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국가적인 공동 협력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이용자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마치 하나의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먼저, 각 도서관이 합의해야 하고 상호대차 적용이 가능한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협행화가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다양한 요구 사항 개진 등을 위해 공청회를 2007년 7월 경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대차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07

VII. 통합형 사이버 지식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하여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형 사이버 지식 정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 접근에 있어 지역에 따른, 혹은 경제 여건에 따른 지역간·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공공성이 부여된 양질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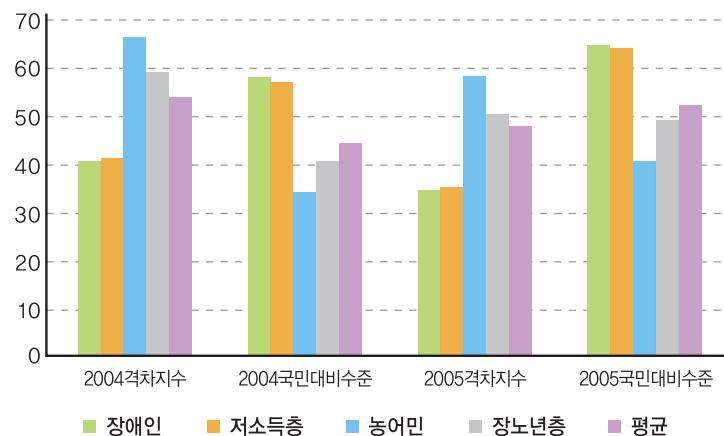
-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최고의 지식 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형 사이버 지식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누구나 원하는 지식 정보에 대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구축한 광범위한 주요 정보 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도서관 발전은 물론 도서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가의 지적 수준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전 국민에게 각종 독서 정보와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학습과 연구 활동, 문화생활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 격차 차수〉



VIII. 국가 문헌 공동 보존 차원의 보존 협력사업

● 국내·외 자료 보존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중의 하나로 자료 보존 업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료 보존 업무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도서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서관들로부터 자료 보존에 관한 문의와 협조 요청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자료 보존에 대한 문제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이야말로 국가 문헌 공동 보존 차원에서 관종을 초월하여 자료 보존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8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에서 자료보존 분과(IFLA PAC)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9월에는 국내 도서관 자료 보존 현황 및 공동 보존 구축 방안에 대한 열린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의 자료보존분과 회원국들의 자료 보존 선진 기술을 국내 도서관에 전달하고, 국내 자료 보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도서관에 소장된 지적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보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보존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내 자료 보존 전문가들이 2003년부터 자료보존교육에 참여하여 “자료 보존 환경과 서고 관리”와 같은 이론 교육은 물론 “간단한 장서 수선·복원 방법” 등 실습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사서 분들이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시간, 숙식, 현장 업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 보존에 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자료 보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자료 보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전, 광주, 부산 지역의 지역대표도서관과 협조하여 자료 보존 교육을 원하는 지역 사서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후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 “자료 보존 이론 및 실습” 순회 교육은 이렇습니다.

2007년 9월~10월 중 실시할 순회 교육의 형태는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도서관의 자료들은 살아 숨쉬는 생물체와 같아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면 그만큼 자료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① 자료의 재질별로 적합한 보존 환경과 서고 관리 방법, ② 물리적·화학적 훼손 원인과 유형 등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실습 교육은 도서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훼손 자료의 간단한 수선·복원 방법으로

① 훼손된 제본을 간단하게 수선·복원하는 방법, ② 찢어지거나 낙장 등 책 내부에 훼손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③ 자료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등을 훼손된 실물 자료를 가지고 실습함으로써 도서관 현장 업무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자료 보존 순회 교육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 보존 실무를 담당하신 자료 보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론적 지식, 기술, 경험 및 연구 성과를 전달합니다.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통하여 이론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간단한 실습 교육을 통하여 실제 훼손된 자료의 수선·복원 작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해당 도서관의 자료 보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현장에서 마련해 드립니다. 순회 교육은 중앙과 지역 도서관들의 보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데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소장된 소중한 지방 문헌들을 과학적으로 보존하여 국가 문헌으로 영구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MEMO



42